

한국농어촌공사 노동조합 당진지부장 이취임

✎ 최운연 기자 | ☎ 승인 2025.04.13 10:34 | ☐ 호수 1550

제10대 전기웅 이임, 제11대 유근생 취임



한국농어촌공사 노동조합 당진지부장 이·취임식이 지난 9일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제10대 전기웅 지부장이 이임하고, 제11대 유근생 지부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시지부 직원 및 관계자, 내외 귀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기 전달, 공로패 전달, 이·취임식 및 축사와 집행부 소개가 이어졌다.

제10대 전기웅 지부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임기 동안 노동조합의 중책을 맡겨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고 값진 경험이었다”며 “우리 조합은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결했고,

때로는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동료로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웅 지부장은 이날 국회의원 표창패를 비롯해 공로패를 받았으며, 강정일·신영훈 조합원이 시장과 시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11대 임원 명단>

△지부장 유근생 △대의원 백종용·신영훈 △양성평등실장 정영숙 △사무장 이창훈

[미니인터뷰] 유근생 한국농어촌공사 노동조합 당진지부장



“투명한 소통, 강한 단결, 젊은 패기로 이끌겠다”

“먼저 조합원을 생각하며 당진지부를 투명하게 이끌어 주신 제10대 전기웅 지부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더 나은 근무환경과 복지를 쟁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투명한 소통, 강한 단결, 젊은 패기로 당진지부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소통을 통해 조합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며, 단결하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모아 노동조합 위원장과, 의장과 업무를 공유하며 여러분의 고충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운연 기자 unyunc@gmail.com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